

PEOPLE

2025년 8월 4일 월요일



문기주 한국e스포츠진흥협회장

화순 최고액 기부자 1호 등극

화순군은 최근 문기주 (사) 한국e스포츠진흥협회장이 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화순군에서 처음으로 최고 한도를 기부한 사례다.

문기주 회장은 화순군 도곡면 출신으로 현재 (사) 한국e스포츠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크로잉스 회장, 글로벌대교도 경제의교단 총재 등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향 화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꾸준히 실천해 온 그는 이번 고액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깊은 연대를 재확인했다.

문기주 회장은 “고향 화순은 제 삶의 뿌리이자 기반이다”며 “이번 기부로 고향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성남시 호남향우회

담양 호우 피해 복구 헌금

담양군은 성남시 호남향우회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8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정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최태호 성남시 호남향우회장,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한 4명이 참석해 담양군 폭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성남시 호남향우회는 2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물품 기탁, 2020년 전남 구례 수해 현장 봉사, 올해 4월 산청 산불 피해 기부 등 호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이어오고 있다.

최태호 회장은 “이번 기부가 담양의 빠른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



전남개발공사

지방교육 솜품 공모 ‘최우수상’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종모)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최한 ‘지방교육 솜품 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나도 지방재정 숨은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계장(전남개발공사 계약장인단)’ 팀이 출품한 영상 ‘수의계약? 그렇게 하면 ‘감사’드립니다!’를 통해 신규 직원이 자주 놓치기 쉬운 실무상 수의계약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감 있는 상황극을 통해 학습의 재미와 이해도를 동시에 높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광주동구문화원, 전통채색화 공모대전 시상식 성료

“K-아트 위상 높아…전통채색화 더욱 발전하길”

320여개 심사·대상 등 10명 수상

6일까지 무등갤러리 수상작 전시

광주동구문화원은 최근 궁동에 위치한 무등갤러리에서 ‘제14회 대한민국 전통채색화 공모대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식에는 임택 동구청장, 김용완 동구문화원장, 임화숙 대회의운영위원장, 이맹자 무등갤러리관장을 비롯해 수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공모전 우수작 시상, 축하, 작품 관람 및 차 시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상 1명(국회의장), 최우수상 2명(광주시장·전남도지사), 우수상 2명(광주 동구청장), 장려상 5명(광주 동구문화원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문화원은 지난5월26일부터6월5일까지(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대한민국전통채색화



광주동구문화원은 최근 궁동에 위치한 무등갤러리에서 제14회 대한민국 전통채색화 공모대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공모대전에 접수된 320여개 작품을 심사했다.

수상작 59점은 오는 6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130개의 초대작가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

김용완 광주동구문화원장은 “올해는 미국에

서도 출품해 K-아트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대한민국 전통채색화 공모대전을 통해 미래와 현

재가 함께하는 전통채색화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도, 이달의 임업인에 구례 문준호씨 선정

3대째 가업 이어받아…가공상품 개발로 안정적 소득 창출

전남도는 8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구례 토지연에서 임산물 재배와 가공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임업인 문준호씨(임업후계자·사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리산 피아골 자락의 원기마을에 귀산촌해 3대째 이어지는 가업을 물려받아 임업경영체 ‘지리담’을 운영 중이다. 두릅, 고사리, 음나무, 초피, 꾸지뽕, 고로쇠 수액 등 계절별 임산물을 직접 재배하며, 이들 자원을 활용한 가공 상품을 개발해 연간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문 임업인으로 성장했다.

귀산촌 초기에는 자금 부족, 임산물 인지도 저

하, 판로 미확보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지리산 청정환경을 활용한 고품질 임산물 생산 △지역 청년들과의 협업을 통한 웰라프·양갱 공동 개발 △가공상품 차별화를 위한 ‘두릅 더비트(드림더비트)’, ‘하루 한봉’ 출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입점을 통한 유통 다각화 전략으로 난관을 돌파했다.

특히 문씨가 자체 개발한 ‘두릅 더비트’와 ‘하루 한봉’은 출시 직후 선행 생산분이 완판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문 씨는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구례

군 협의회장으로 선출돼 지역 청년 임업인의 리더 역할도 맡고 있다.

문준호 씨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임업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임산물 가공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문 씨처럼 지역에 뿌리내린 청년 임업인이 전남 임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도는 앞으로도 귀산촌 청년과 임업후계자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산림소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200억 원 규모의 산림소득 사업비를 투입해 임산물 재배기반 확충, 생산장비 보완,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통해 임업인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신현국·박정연 도경건설(주)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

1억원 약정금 완납…딸 생일 맞춰 핸드프린팅 기념행사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신현국·박정연 도경건설(주) 대표이사가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이후 약정했던 기부금 1억원을 완납하고, 이를 기념하는 핸드프린팅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핸드프린팅 행사는 지난달 31일 도경건설(주) 사실에서 진행됐으며,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비롯해 신 대표 부부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신 대표 부부의 첫 딸 생일을 맞아 준비된 자리로, ‘가족과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신 대표는 “사랑하는 딸의 생일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겨 더욱 뜻깊다”며 “나눔의 가치를 가족과 함께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현국·박정연 대표는 2021년 3월16일 결혼기념일을 맞아 나란히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광주 120호·121호 회원이 됐다. 동시에 광주 지역 18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 약정 금액을 모두 완납하면서 두 사람 모두 정회원 자격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이들은 기



념일마다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한 철학을 가진 기부자”라며 “이번 핸드프린팅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남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경건설(주)은 2013년 전남 장성군에 설립된 포장공사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 기업으로, 겨울철 도로 위 결빙을 예방하는 ‘도로 결빙방지 기술’을 상용화에 주목받고 있다. 기술력과 함께 사회공헌에도 앞장서는 지역 기반의 모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민주시민사회 실현과 공익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5·18부상자회, 민주시민사회 실현 추진

한국일자리창출산업협회 등 협약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민주시민사회 실현과 공익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3일 부상자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일자리창출산업협회, 비즈플랫폼 등과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발맞춘 3자 간 전략적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사업, ESG 리터러시와 실천 교육, 공익교육 콘텐츠

의 내수화 및 수출화 모델 구축, 광주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적 확산 추진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10월부터 광주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및 취·창업교육 시범사업 실시, 연내 5개 지역 거점 기관과의 협약 추진, 2026년까지 ‘아시아형 민주·공익 교육모델’ 구축 및 수출형 콘텐츠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다.

조규형 5·18부상자회장은 “5·18 정신은 단지 과거의 역사에 머무는 것이 아닌, 미래 세대가 지켜야 할 지속 가능한 민주가치의 뿌리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에서 다시 시작하는 민주와 교육의 불꽃이 전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



광주시북구새마을회, 농촌집고쳐주기 광주시북구새마을회(협의회장 장희수)는 지난 1일 장성군 일원에서 다슬못지비지재단과 함께하는 농촌집고쳐주기 대상 가구를 위해 사전 청소 및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북구새마을회



서구, 행복공동체 이끌 마을활동가 배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최근 창작농성골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세컨드 마을자치(전문) 학교 입문과정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수여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